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192

**Updated March 27,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3
Bulk Carrier	10
- BC Sales Report	
Tankers	14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8
Key Indicators	20
Useful Information	22
Contact Information	24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MARKET OVERVIEW

### 1. 신조선 시장동향

2018 년 전세계 선박 수주량은 2 월말 기준 월평균 650 만 DWT 로 지난해의 670 만 DWT 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종별로는 탱커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고 컨테이너선, LNG 선, 기타 선종(크루즈선, 해양지원선)등 고부가 선박의 비중은 상승했다.

국가별 점유율은 고부가 선박 발주 증가에 힘입어 CGT 기준으로 한국이 27%(2017)→ 34%(2018 년 2 월)로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41%(2017)→ 35%(2018 년 2 월), 일본 9%(2017)→17%(2018 년 2 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 조선은 DWT 나 CGT 기준 모두 30% 내외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국조선 수주실적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LNG 선이다. 3 월 현재 한국이 수주한 LNG 선은 전세계 14 척 중 13 척, 금액으로는 약 23 억 4 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벌크선 시장동향

캄사르막스 벌크선 거래가 눈에 띄는 한주였다.

일본산 캄사르막스 'HAMPTON BAY'(81,508 DWT, BLT2009 UNIVERSAL)DL 1,910 만 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 월에 동 선령의 'NORD VENTURE' (82,221 DWT, BLT 2009 TSUNEISHI)가 1,820 만 달러에 매각된 것과 비교하면, 선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OCEAN VIRGO", "OCEAN LIBRA", "OCEAN SCORPIO" (81,563, 81,504, AND 81,687 DWT, BUILT 2013 YANGFAN) 3 척의 캄사르막스가 그리스의 TIMES NAVIGATION 에게 척당 1,83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한주만에 빈티지 핸디막스 벌크선이 5 척이 매각되었다. "NEPENTHE" (48,913 DWT, BUILT 2001 IHI)은 820 만 달러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선박은 2016 년 4 월에 "STEEL VISION"이란 선명으로 350 만 달러에 현 선주에게 매각되었었다. BLUE ANGEL (44,950 DWT, BLT 1994 HAKODATE) 역시 비슷한 경우로, 2017 년 2 월에 250 만달러에 사들인 선박이 거의 1 년만에 200 만 달러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45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 I . MARKET OVERVIEW

---

### 3. 탱커선 시장동향

탱커선 용선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프라막스 탱커선 여러척이 거래되었다.

일본의 MITSUBISHI CORPORATION 이 아프라막스 탱커선 4 척을 한꺼번에 매각하였다. 해당선박은 "DIAMOND FAITH" (114,737 DWT, BUILT 2016 NAMURA), "DIAMOND DESTINY" (107,508 DWT, BUILT 2011 TSUNEISHI), "DIAMOND ETERNITY" (107,497 DWT, BUILT 2011 TSUNEISHI), "DIAMOND BLISS" (107,605 DWT, BUILT 2009 TSUNEISHI)로 총 선가 1 억 1,500 만 달러에 싱가포르의 EASTERN PACIFIC 으로 일괄매각 되었다.

이 외에도 또 한척의 아프라막스 탱커선 "HS MEDEA" (113,013 DWT, BUILT 2003 HYUNDAI SAMHO)이 1,070 만 달러에 그리스바이어에게 매각되었다.

### 4. 해체선 시장동향

파키스탄의 탱커선 수입재개에 대한 별다른 뉴스가 없는 상태로 해체선 시장은 살짝 다운되는 분위기다. 탱커선 해체선가가 약하락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LDT 당 평균 400 달러 중반대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2 척의 VLCC 가 해체선으로 매각되며 대형탱커선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SEAWAYS RAPHAEL" (42,692 LDT, BUILT 2000)이 중동 오만에서 딜리버리 조건으로 LDT 당 442 달러에 매각되었다. GAS FREE FOR MAN ENTRY 조건으로 1,000 톤 가량의 벙커잔유량이 포함된 가격이다. 다른 한척의 VLCC 는 "MILLENNIUM" (41,168 LDT, BUILT 1998)으로 싱가포르 딜리버리 조건으로 LDT 당 445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GAS FREE FOR MAN ENTRY 조건으로 500 톤의 벙커 포함 가격이다.

아프라막스 탱커선 "AMBA BHAKTI" (15,988 LDT, BUILT 1997)은 상해 딜리버리 조건으로 LDT 당 382.5 달러에 매각되었는데, 처음으로 온라인 경매를 통한 해체선 매각으로 알려졌다.

## II . ISSUE & TREND

### 1.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관련 회의가 다음 주에 개최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 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강준석 차관과 설립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처리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3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 제 2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강준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해수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위촉됐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이환구 한국해운연합(KSP) 간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공사 설립 전까지 공사의 △정관 마련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달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수부 훈령으로 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운영규정과 공사 설립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한다.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이다.

앞서 해운업이 불황인 데다 한진해운까지 파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해운지원 조직인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성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방안을 반영,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명명한 조직 설립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국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지난달 처리했다. 설립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연기하자는 야당 주장이 반영돼 공사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하기로 했다.

공사가 설립되면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박 발주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채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 II . ISSUE & TREND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이행 등을 추진한다.  
(주)한국선박해양, (주)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은 공사에 통합된다.

김영춘 장관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사 설립을 “올해 1 순위 과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해운업에 대해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공사가 설립되면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5 개년 계획 등을 통해 개별사를 지원하겠다.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을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 주간 보도계획 및 주간 행사일정이다.

### ◇주간 보도계획

#### △26 일(월)

11:00 아는 만큼 안전海 집니다.(10 시 40 분 브리핑)

11:00 물고기 길, 어도(魚道)! 다 함께 만들어가요!(11 시 브리핑)

#### △27 일(화)

11:00 2018 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11:00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스마트팜 R&D 공청회 개최(부처합동)

15:00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독점 탐사계약 체결

#### △28 일(수)

06:00 어린연어야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11:00 제 7 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2 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폐기물 배출해역 2017 년 환경상태 정밀조사 결과 발표

#### △29 일(목)

11:00 2016 년 기준 해양산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11:00 제주 용암해수, 먹고 바를 수 있는 청정오일로 재탄생

#### △30 일(금)

06:00 수중로봇 챌린지대회 개최

## II . ISSUE & TREND

---

06:00 제 2 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위원회 개최

△1 일(일)

11:00 제 5 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2 일(월)

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10 시 브리핑)

### ◇주간 행사일정

△26 일(월)

09:3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3:30 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장관, 세종컨벤션센터)

△27 일(화)

14:00 서태평양 망간각 독점 탐사계약 체결식(장관, 프라자 호텔)

17:00 FAO(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 의장 면담(강준석 차관, 부산)

△28 일(수)

11:00 수협창립기념식(차관, 수협중앙회)

16:00 해운-조선 상생협의체 회의(차관, 서울청사)

△29 일(목)

10:0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6:00 중앙연안관리심의회(차관, 해수부 대회의실)

△30 일(금)

10:30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차관, 해수부 중회의실)

14:00 제 7 회 수산인의 날(장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II . ISSUE & TREND

### 2. 컨테이너 운임 최저치 추락...시름 깊어지는 해운업계

컨테이너 운임이 700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며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대형선 발주에 따른 공급과잉 지속으로 해운업계 시황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 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3 월 셋째 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75.46 포인트로 전주 대비 54.03 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평균(814.22)은 물론 지난해 최저치(703.67)와 비교해 대폭 떨어진 수치다. SCFI 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2009 년 10 월 1000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시아-유럽 항로의 경우 상해발 유럽행 운임은 전주 대비 TEU(20 피트 컨테이너 1 개)당 50 달러 하락한 741 달러로 나타났다. 아시아-북미 항로는 상해발 미서안행이 전주 대비 FEU(40 피트 컨테이너 1 개)당 127 달러 하락한 1016 달러, 미동안행이 172 달러 떨어진 2009 달러를 기록했다.

동서 기간 항로는 중국 춘절 이후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아시아-유럽 항로는 10%, 아시아-북미서안 항로는 24%, 아시아-북미동안 항로는 26% 하락한 상태다. 최근 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선사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을 투입, 공급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급 불균형 심화다.

송재학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컨테이너선 운임 약세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대규모로 인도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세계 경제상황이 양호하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 전형적인 컨테이너시장 성수기인 3 분기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해운분석기관 시인텔(SeaIntel)에 따르면 올해 1 월에만 7 척의 2 만 TEU 급 초대형선박을 포함한 25 만 TEU 규모의 신조선이 시장에 진입했다. 오는 7 월까지 초대형선박 인도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2016 년 시황 부진에 따라 초대형선박 신조 발주가 5 척에 불과했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시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초대형선박에 대한 신조 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CMA CGM 이 2 만 2000TEU 급 9 척, 코스코 2 만 1000TEU 급 6 척, 1 만 3500TEU 급 8 척을 중국 조선소에, 세계 2 위 MSC 는 2 만 2000TEU 급 11 척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등 지난해에만 2 만 TEU 급 이상 초대형선박이 26 척 발주돼 내년 및 2020 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초대형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 SM 상선 등 국적 원양선사들은 운임 경쟁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운임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 화주확보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 II . ISSUE & TREND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늘어나 운임이 하락하면 치킨게임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선복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선사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상선은 올 상반기 안으로 2 만 2000TEU 급을 포함한 20 척의 초대형선박 발주를 추진 중이다. 오는 7 월 1 일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현대상선은 인도시기를 고려하면 공사 설립 이전에 발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상반기 안으로 발주 신청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뉴스타트 한국해운 재건 5 개년 계획'에 핵심도 원양 컨테이너 선사 100 만 TEU 육성이다. 이번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사들의 규모 확대 및 노선 합리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고병욱 KMI 부연구위원은 "오는 5 월이면 북미항로의 서비스 계약 및 운임이 확정되는데 운임 약세로 선사들의 협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올해는 2016 년만큼의 치킨게임은 아니지만 선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 블록체인에 눈 뜬 해운업계

"블록체인이 해운·물류에 완전 도입되면 무역 장벽이 낮아진다. 아프리카 등 무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도 무역이 쉬워질 것이다."

현대상선(011200)블록체인 프로젝트 담당자인 곽광용 PI 추진팀 과장은 해운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무역 거래를 쉽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일부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며 "무역 자체가 촉진돼 거래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선사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도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 해운·물류업계, 블록체인에 관심

블록체인에 대한 해운·물류업계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을 분산된 네트워크에 공유된 장부로 두며, 중앙 관리나 통제 없이 참여자들이 서로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 II . ISSUE & TREND

기술을 말한다. 운송 중인 화물이 어디쯤 있는 지 알 수 있는 가시성(Visibility) 확보,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 관리, 거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해운·물류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평가 받는다.

해운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이 전면 도입되면 까다로웠던 서류 문서 작업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지정된 수신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 등 기존 신용장 거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종이 서류나 전자문서교환(EDI) 대비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무역 거래가 쉬워질 것이란 이야기다.

글로벌 선사들은 블록체인 공부에 나섰다. 세계 1 위 선사 머스크는 IBM 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준비 중이다. 현대상선도 지난해 삼성 SDS(018260)가 주도하는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해 기술 도입을 준비해왔다.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에는 현대상선, 삼성 SDS 등 38 개 민·관·연 기관이 참여해 중국·베트남·인도·유럽 항로에서 시험 운항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현대상선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작년에 시범 운항까지 마쳤지만 화주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는 마땅치 않고, 기술 여건상 전면적인 도입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된 뒤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작년까지 진행한 테스트는 해운 물류 전반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올해는 구체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효과를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7년 12월 21일 열린 ‘2017년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결과발표’ 행사장에서 삼성 SDS 를 포함한 기업, 정부, 연구소 등 총 3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삼성 SDS 제공

### ◇ 영국 슈퍼마켓서 인도네시아 어부가 잡은 참치 정보 확인

블록체인은 해운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가시성 확보에 최적화된 기술이다. 가시성은 원료 공급지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파악하고, 화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물류 업체들은 가시성 확보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II . ISSUE & TREND

영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프로버넌스(provenance)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어부가 잡은 참치가 영국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다. 인도네시아 어부가 휴대전화로 참치 정보를 등록하면, 이 정보가 참치통조림 공장을 거쳐 유통업체에도 기록된다. 소비자는 바코드로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시성은 대금 결제에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금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실제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낸 서류만 보고 금융을 제공했다. 이를 악용해 가짜 서류를 내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실제 컨테이너가 어디쯤에 있는지 바로 확인하게 되면 허위 거래를 쉽게 걸러낼 수 있게 된다.

◇ 케냐에서 네덜란드까지 필요한 서류만 200 개...블록체인으로 간소화

무엇보다 까다로운 서류 작업이 사라진다. 해운 물류는 단순히 화물만 옮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반하는 수많은 서류를 처리하는 것까지 중요한 업무다. 모든 정보 교환이 서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머스크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유럽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화훼 화물을 옮기는데 관련된 기관만 30 곳, 필요한 서류만 200 종류가 넘는다.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한 달이 넘는다.

전자문서교환(EDI) 방식 도입으로 서류 전달 시간을 단축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EDI도 양 당사자 간 양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서류 작업에 골머리를 앓던 해운·물류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블록체인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거래 신뢰성은 해운·물류 거래 방식마저 바꿀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이뤄지고 참여 절차가 투명해지면, 블록체인 내 거래에 사기나 위·변조가 없다는 신뢰가 생긴다. 그럴 경우 선하증권 등 신용장이 사라질 수 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서를 말한다. 선하증권 등 주요 문서는 한 글자만 틀려도 처리가 안 될 뿐 아니라 수정하려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 선하증권만 말아서 처리하는 전담 인력이 있을 정도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하증권 등 신용장을 주고 받는 단계만 사라져도 2 주일 걸리는 서류 작업이 2~3 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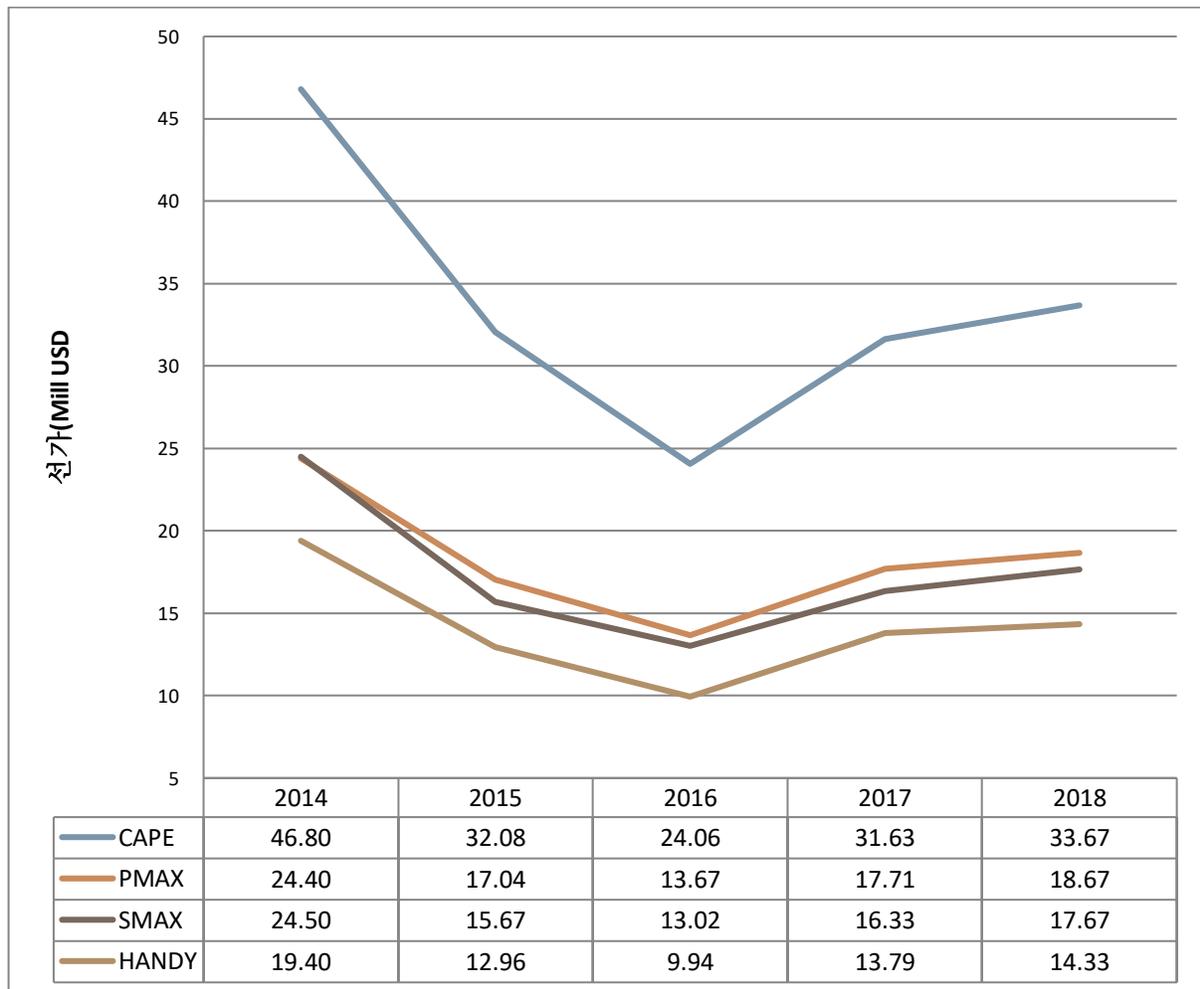
###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b>Capesize 180K</b>	46.80	32.08	24.06	31.63	33.67
	28.81%	-31.45%	-24.99%	31.43%	6.46%
<b>Panamax 76K</b>	24.40	17.04	13.67	17.71	18.67
	13.27%	-30.16%	-19.80%	29.57%	5.41%
<b>Supramax 56K</b>	24.50	15.67	13.02	16.33	17.67
	14.84%	-36.04%	-16.91%	25.44%	8.16%
<b>Handysize 32K</b>	19.40	12.96	9.94	13.79	14.33
	9.04%	-33.20%	-23.32%	38.78%	3.93%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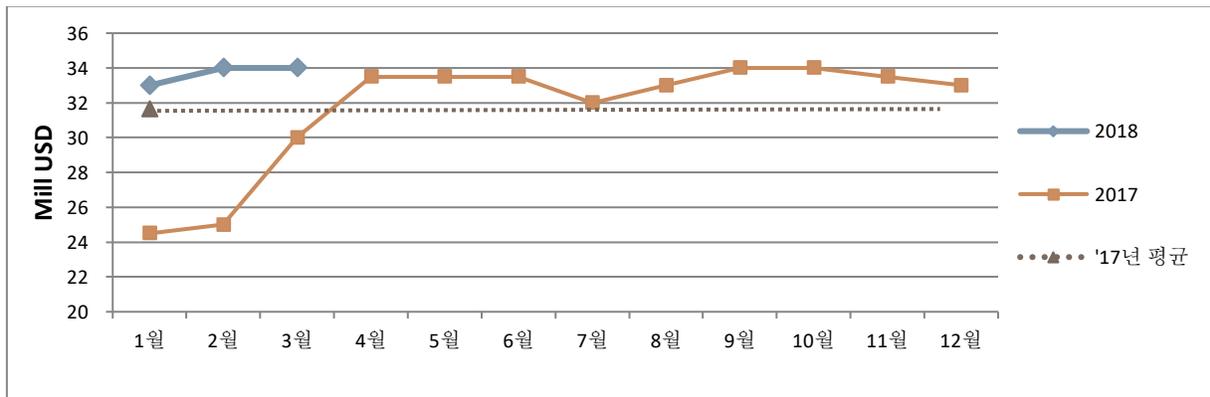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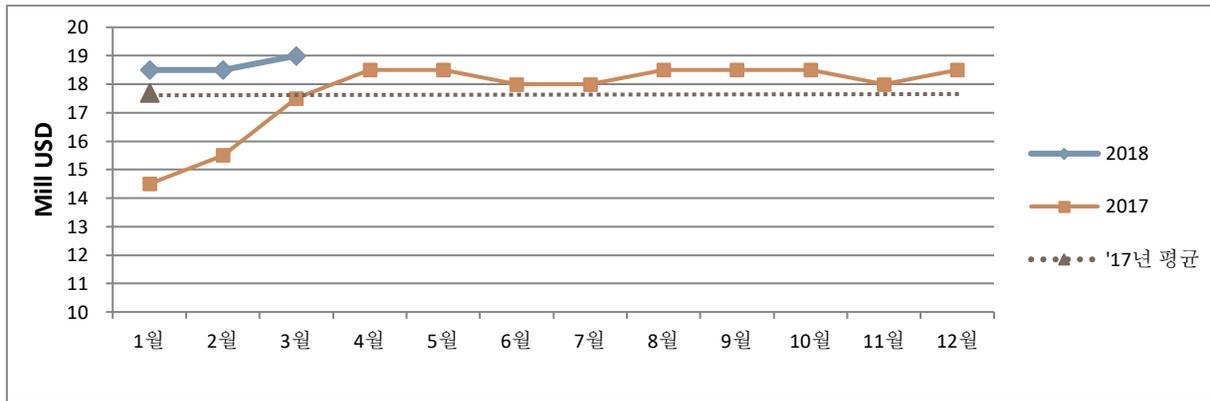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3.67
		전월대비	0.0%	3.0%	0.0%				-
		전년대비	34.7%	36.0%	13.3%				6.5%
	PMAX 76k	선가	18.50	18.50	19.00				18.67
		전월대비	0.0%	0.0%	2.7%				-
		전년대비	27.6%	19.4%	8.6%				5.4%
	SMAX 56k	선가	17.50	17.50	18.00				17.67
		전월대비	0.0%	0.0%	2.9%				-
		전년대비	20.7%	16.7%	12.5%				8.2%
	H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4.33
		전월대비	0.0%	0.0%	7.1%				-
		전년대비	7.7%	3.7%	11.1%				3.9%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1.6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9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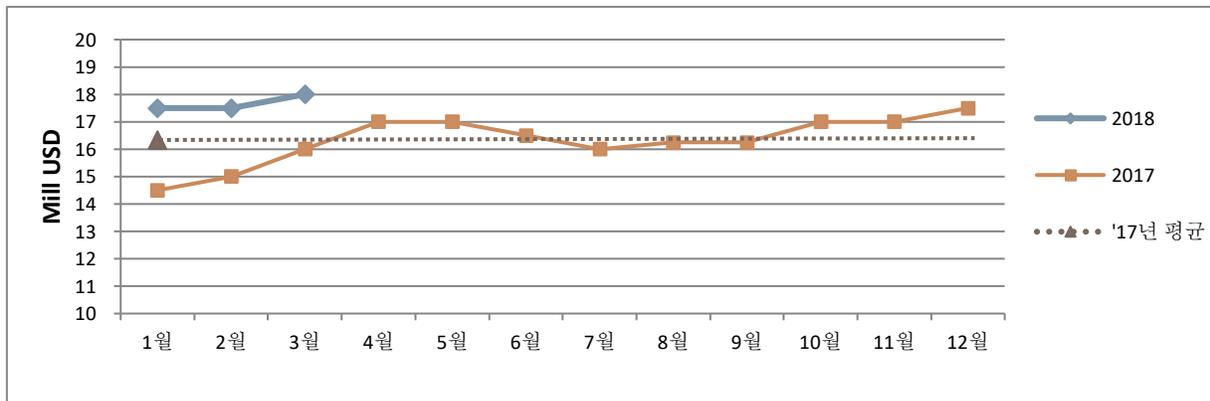


###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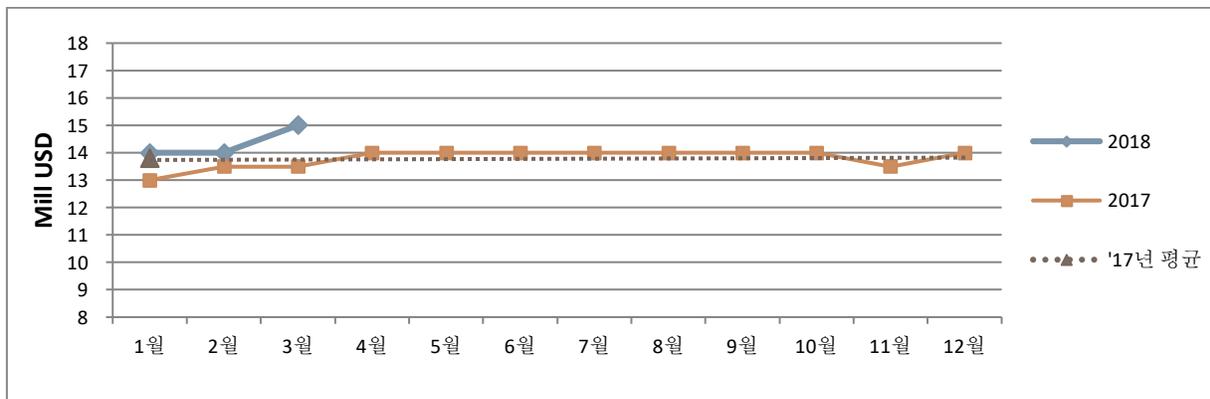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 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OCEAN LIBRA	81,564	2013	CHINA	MITSU		18.3	
BC	OCEAN SCORPIO	81,564	2013	CHINA	MITSU		18.3	Greek buyer (Times Navigation)
BC	OCEAN VIRGO	81,564	2013	CHINA	MITSU		18.3	
BC	HAMPTON BAY	81,508	2009	JAPAN	B&W		19.1	undisclosed buyer
BC	HAMMONIA MALTA	56,700	2010	CHINA	B&W	C 4x35t	11.5	undisclosed buyer
BC	NICHIRIN	55,694	2010	JAPAN	B&W	C 4x30T	15	Turkish buyer (Densay Shipping)
BC	NEPENTHE	48,900	2001	JAPAN	SULZ	C 4x30t	8.2	undisclosed buyer
BC	TONG XIANG	47,240	1997	JAPAN	MITSU	C 4x30t	5.3	undisclosed buyer
BC	MONICA P	46,667	1998	JAPAN	B&W	C 4x30t	6	undisclosed buyer
BC	OZGE AKSOY	45,664	1995	JAPAN	B&W	C 4x25t	5	undisclosed buyer
BC	BLUE ANGEL	44,950	1994	JAPAN	B&W	C 4x25.5t	4.5	undisclosed buyer
BC	GLORIOUS SAWARA	28,339	2009	JAPAN	B&W	C 4x30.5t	9	Greek buyer
BC	LUCKY STAR (log ftted)	27,321	1995	JAPAN	B&W	C 4x30.5t	2.9	Chinese buyer
BC	KIBELE	12,235	2000	JAPAN	MITSU	C3x30t	3.3	Turkish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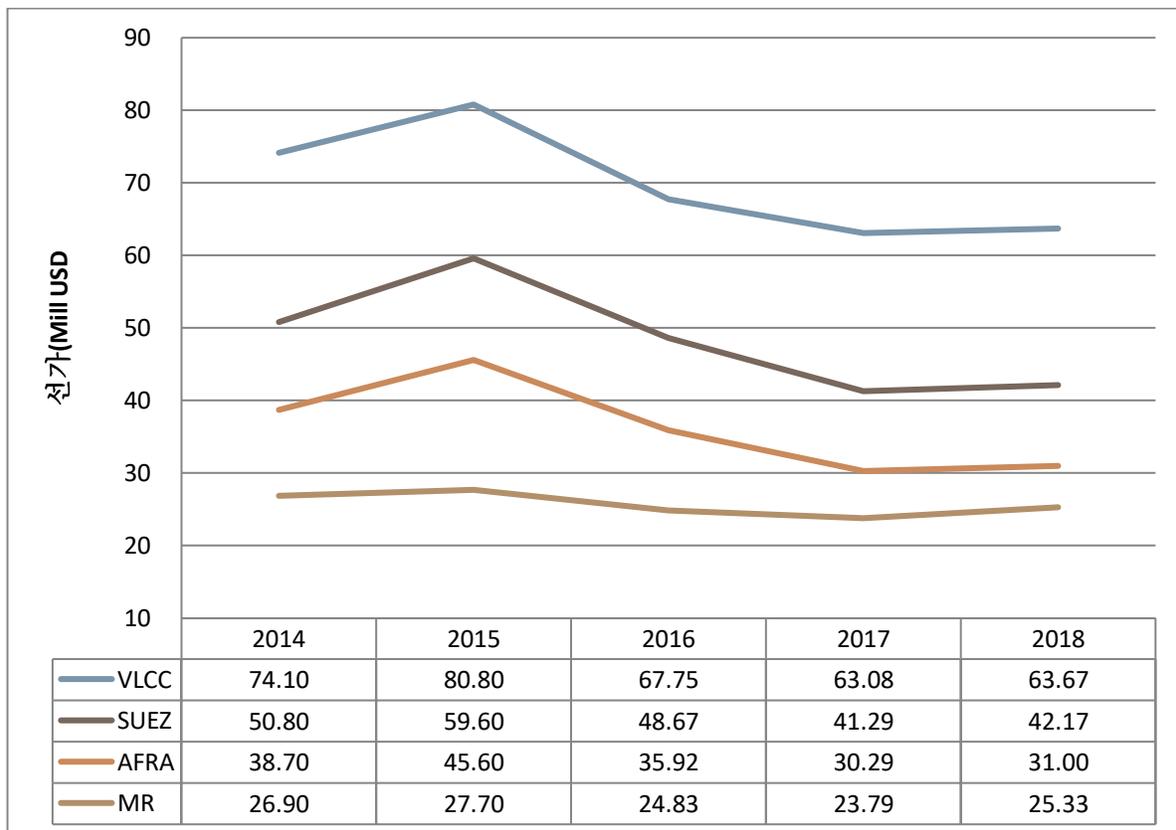
##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80.80	67.75	63.08	63.67
	32%	9%	-16%	-7%	.9%
Suezmax 160K	50.80	59.60	48.67	41.29	42.17
	27%	17%	-18%	-15%	2.1%
Aframax 105K	38.70	45.60	35.92	30.29	31.00
	33%	18%	-21%	-16%	2.3%
MR 47K	26.90	27.70	24.83	23.79	25.33
	2%	3%	-10%	-4.2%	6.5%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12.60	13.92	12.42	12.67
	9%	-3%	10%	-10.8%	2.0%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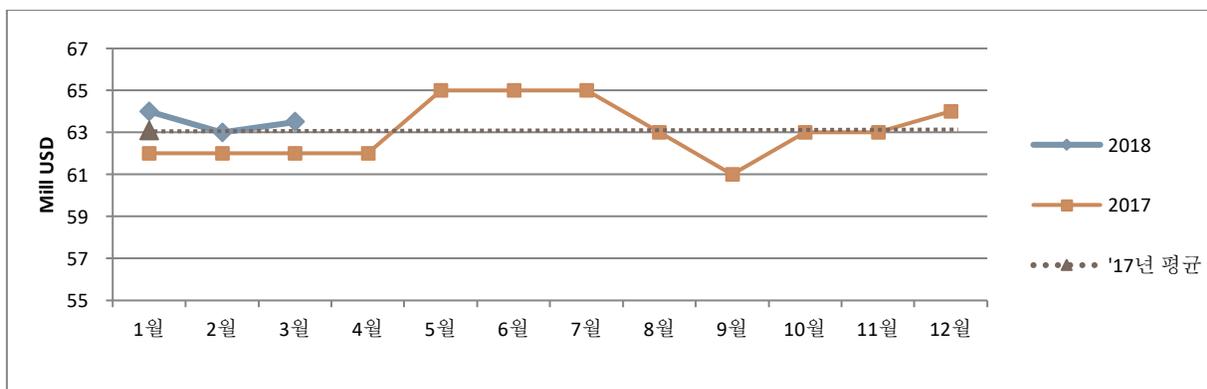




##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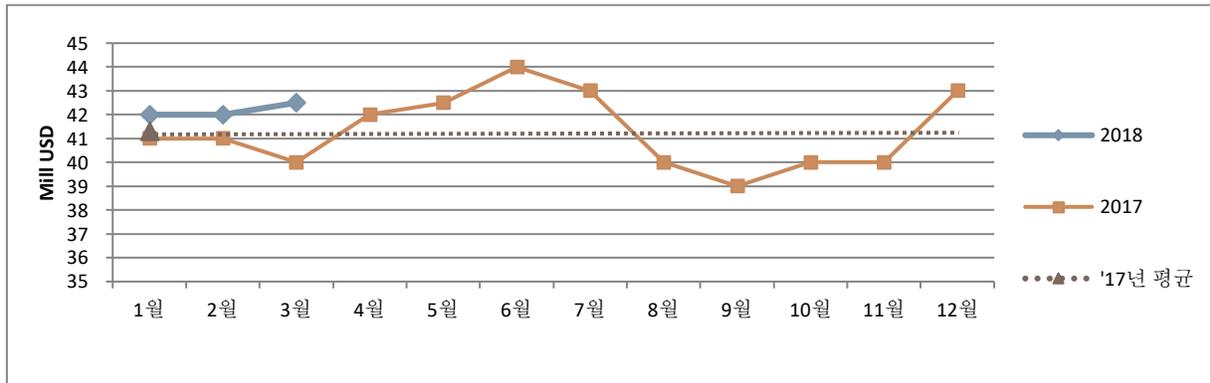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3.67
		전월대비	0.0%	-1.6%	1.6%				-
		전년대비	3.2%	1.6%	3.2%				0.9%
	SUE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2.17
		전월대비	-2.3%	0.0%	1.2%				-
		전년대비	2.4%	2.4%	6.3%				2.1%
	AFR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1.00
		전월대비	0.0%	-6.3%	3.3%				-
		전년대비	6.7%	0.0%	8.8%				2.3%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5.33
		전월대비	0.0%	0.0%	4.0%				-
		전년대비	11.1%	11.1%	15.6%				6.5%
CHEM IMO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67	
	전월대비	0.0%	-3.8%	0.0%				-	
	전년대비	6.1%	4.2%	-2.0%				2.0%	
2017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1.29	
	AFRA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0.29	
	MR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3.79	
	CHEM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42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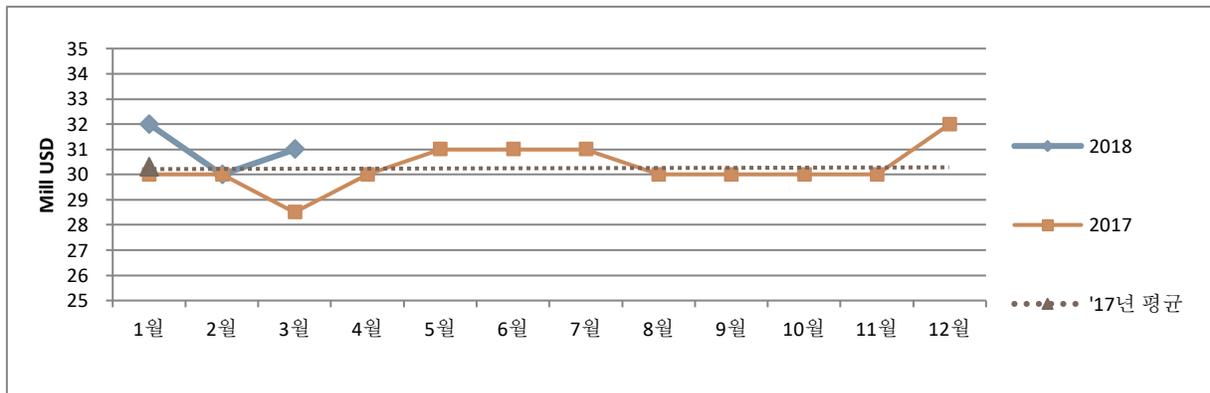


##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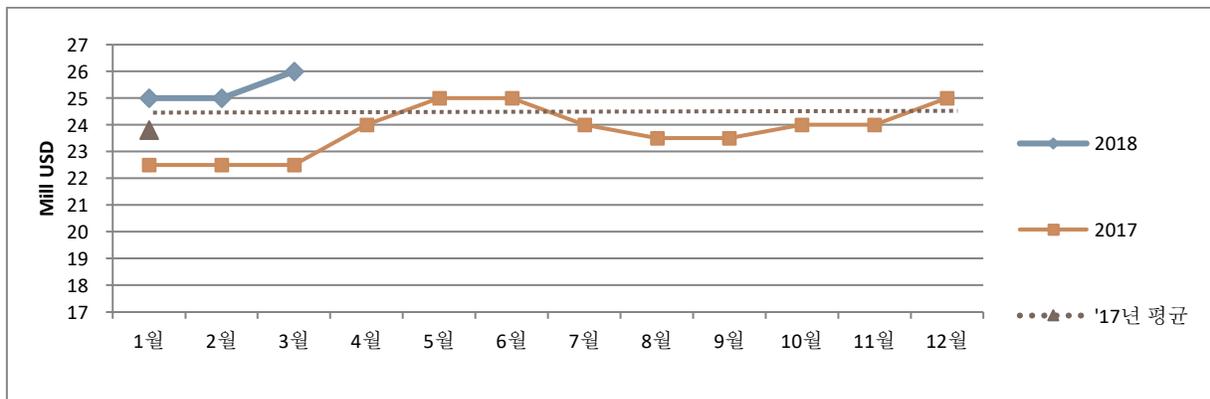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47K



## IV.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DIAMOND FAITH	114,737	2016	JAPAN	B&W		39.7	
TANKER	DIAMOND BLISS	107,605	2009	JAPAN	B&W		22.1	Singaporean buyer (Eastern Pacific)
TANKER	DIAMOND DESTINY	107,508	2011	JAPAN	B&W		26.6	
TANKER	DIAMOND ETERNITY	107,497	2011	JAPAN	B&W		26.6	
TANKER	HS MEDEA	113,013	2003	KOREA	B&W		10.7	Greek buyer (Coral Shipping)
OIL/CH EM	BALTIC CHAMPION	37,340	2003	KOREA	B&W	3	7.6	undisclosed buyer, SS/DD due
CHEM	SILVER HAWK (stst)	8,829	2003	JAPAN	B&W	2&3	7	Korean buyer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HAMMONIA HUSUM	34253	2006	KOREA	SULZ	2556	TEU	8.45	Singaporean buyer
CONT	PACIFIC STAR	26260	1997	GERMAN	SULZ	1900	TEU	6.3	India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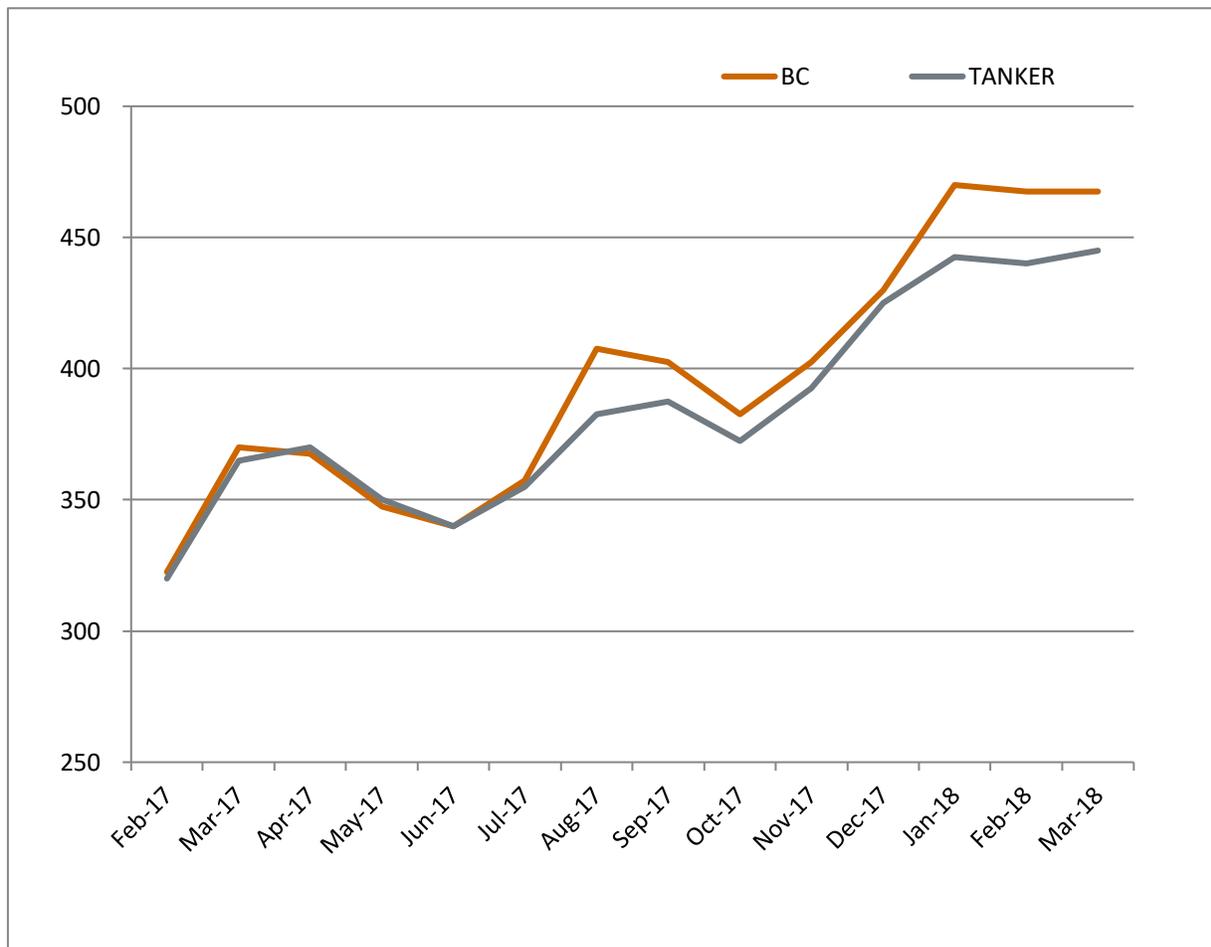


## 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3 월	2018 년 3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42.50	21.2%	365.00	445.00	1.1%	21.9%
BC	267.71	-20.5%	370.83	38.5%	468.33	26.3%	370.00	467.50	0.0%	26.4%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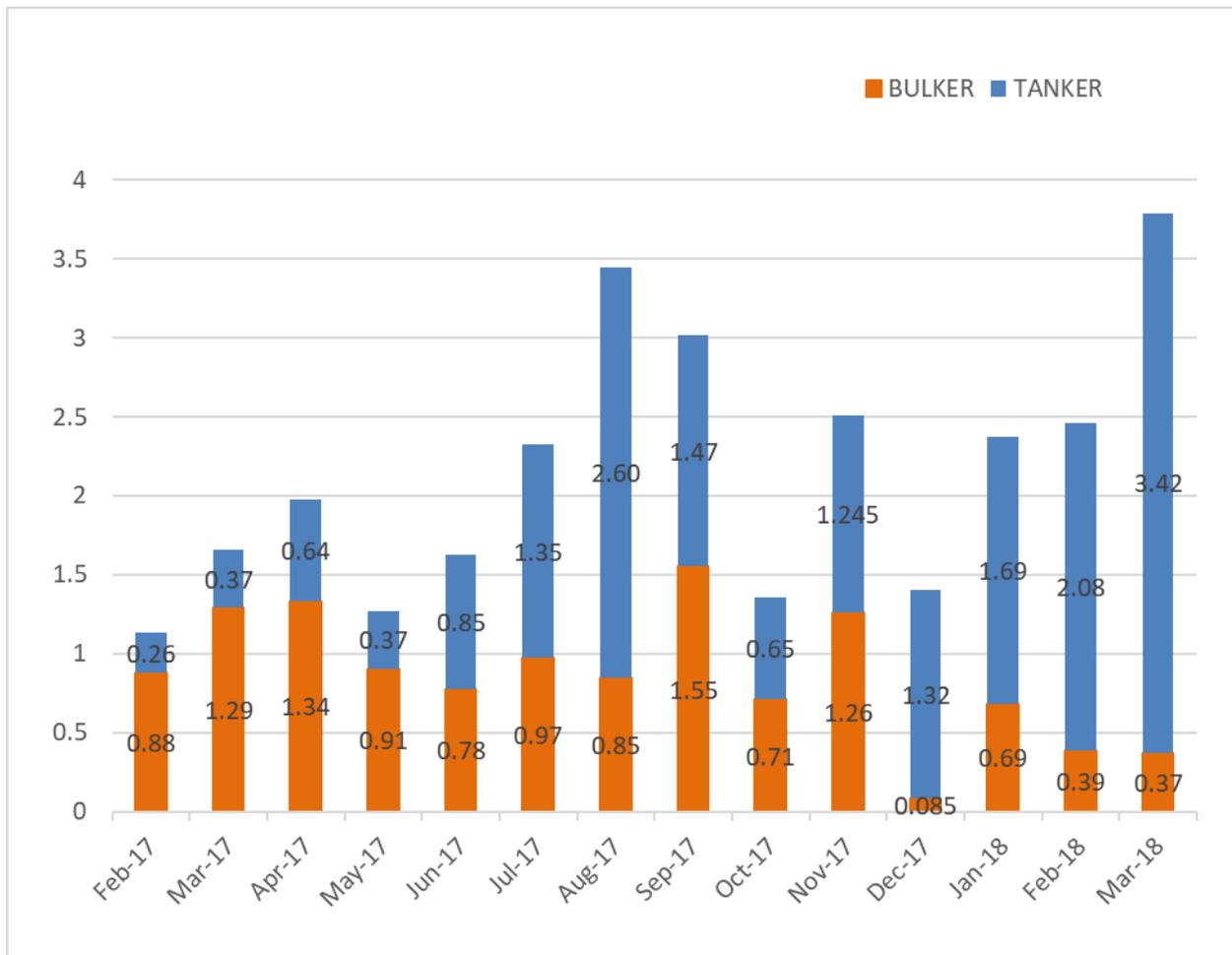


## 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3 월		2018 년 3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7.19	62.7%	59	52.2%	0.37	9	3.42	823.8%	19	111.1%
BC	11.74	292	1.44	12.3%	28	9.6%	1.29	36	0.37	-71.2%	9	-75.0%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V . DEMOLITION

###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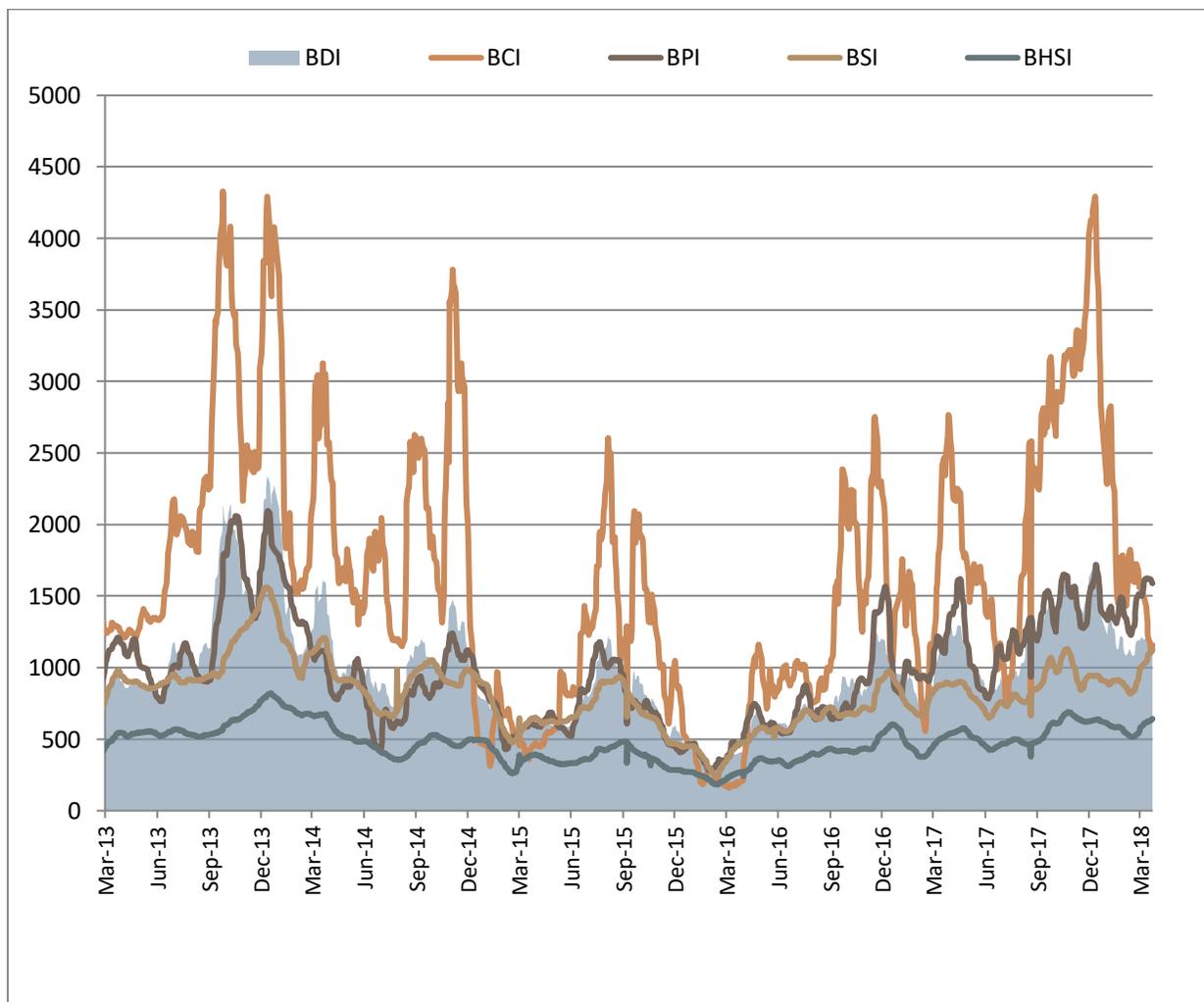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REMARKS
CON T	OEL BENGAL	14,910	4895	1985	JAPAN	B&W	475	AS IS Colombo (BANGLADESH)
RO- PAX	HARSHA VARDHANA	5,296	5909	1974	INDIA	SULZ	388	AS IS Colombo (INDIA)
TAN KER	SEAWAYS RAPHAEL	309,614	43375	2000	KOREA	B&W	442	AS IS Omax, incl ROB 1000ts, gas free for man entry
TAN KER	MILLENNIUM	301,171	41653	1998	KOREA	B&W	445	AS IS Singapore, incl ROB 500ts, gas free for man entry
TAN KER	AMBA BHAKTI	106,597	15988	1997	JAPAN	SULZ	382.5	AS IS Shanghai, e-auction sale



## VI.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8-03-23	2018-03-16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122	1143	▼-21.00	2337	290
BCI	1157	1203	▼-46.00	4329	161
BPI	1587	1618	▼-31.00	2096	282
BSI	1121	1091	▲30.00	1562	243
BHSI	641	627	▲14.00	821	183





## VI.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78.00	▲6.00	362.50	▲9.50	363.00	▲10.50
IFO180	407.00	▲7.50	393.00	▲11.00	426.50	▲10.50
MGO	612.00	▲24.50	575.00	▲27.50	596.00	▲8.50

❖ 기준일 : 3 월 23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8-03-23	2018-03-16	CHANGE
미국달러	1069.20	1065.80	▲3.40
일본엔(100)	1019.60	1002.59	▲17.01
유로	1317.41	1311.57	▲5.84
중국위안	169.30	169.04	▲0.26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설명회	해운물류분야 블록체인 설명회	3.27(화) 14-16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 (한국해양산업총 연합회)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해운물류분야 적용 사례 공유 (삼성 SDS 양영태 그룹장)
포럼	제 8 회 MARITIME KOREA 포럼	3.29(목) 11시	여의도 GLAD 호텔 Bloom A (한국해양산업총 연합회, 한국선주협회)	-.해운·물류업계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 (이봉의 서울대 교수)
박람회	북경 해양기술 및 장비 박람회 (CHINA MARITIME 2018)	3.27 (화) ~ 3.29 (목)	New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Beijing	- <a href="http://www.chinamaritime.com.cn/en/">http://www.chinamaritime.com.cn/en/</a>



## VIII. CONTACT INFORMATION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